

영화 제목으로 본 영한 번역기법 연구: 영화 산업 정책과 언어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권 유 진
(부산대)

1. 서론

영화 제목은 관객이 영화와 마주하는 첫 요소로서 포스터, 트레일러와 함께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잘 번역된 영화 제목이 갖는 기능적 특징은 첫째 즐거움을 요약하고 주제를 드러내어 관객에게 영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기능, 둘째 관객의 감성을 자극해 영화에 호소력을 더하는 호소적 기능, 셋째 언어의 수사적 기교를 통해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심미적 기능이 있으며 (Newmark 2001; Yin 2009), 마지막으로 관객의 흥미를 자극해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상업적 기능(Bai 2018)이 있다. 따라서 영화 제목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영화의 흥행에 대단히 중요하며, 영한 번역된 영화 제목은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번역가가 아니라 주로 영화 직배사나 수입배급사 혹은 영화제 측으로부터

터 직접 정해진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동아일보, 2020. 4. 13).

영화 제목의 이러한 기능적 특징과 영한 번역된 제목이 작성되는 생태를 고려할 때, 영화 제목 번역 연구는 텍스트적 차원을 넘어서 번역과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사회적 접근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영화 제목이 번역되는 방식은 당대 관객의 요구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도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미 군정기를 거쳐 여러 차례 급격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거듭되었으므로 번역이 사회적 변화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 제목이 영한 번역되는 양상을 시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번역기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한 번역되는 영화 제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변수는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언어 정책의 변화가 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무방비 상태였던 한국 영화 시장(김정수 2008: 7)에 영화 산업에 관한 본격적인 법령이 마련된 것은 1962년 1월에 공포된 영화법이 시초이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 영화 산업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와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수차례 변화를 맞는다(좌승희, 이태규 2006: 94-101). 또 다른 변수로서 언어 정책은 대표적으로 국어 순화 정책을 들 수 있는데, 1953년 국어심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1962년 문교부가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설치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정책적 실천이 이루어졌다(박창원 외 2010: 24-25). 따라서 국내 영화 산업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 마련되고 국어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1962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언어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한 번역기법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정부 정책의 변화가 번역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로 수입되어 개봉된 미국 영화 제목의 영한 번역기법의 양상이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정책 변화가 번역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영화 제목의 영한 번역기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번역기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둘째, 국내 언어

정책의 변화가 영화 제목의 영한 번역기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영한 번역기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연구 자료는 1962년 1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2019년 5월까지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의 영한 번역된 제목으로서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언어 정책이 변화된 각 시기를 기준으로 총 300편의 영화를 분석한다. 미국 영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해방을 맞은 1945년부터 미국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김정수 2008: 7), 당시 상영된 서구 영화의 2/3 정도가 미국 영화였으며(노지승 2016: 341-342),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적별 영화 개봉 편수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외국 영화 가운데 미국 영화의 점유율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오미형(2012), 조영희(2014), 안데르센(Andersen 2010)의 정의에 따라 번역기법을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의 상위범주로 구분하고 의역은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용’, ‘생략’의 하위범주로 구분한다. 연구 방법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각 시기별 영한 번역기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빈도수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유효성을 검토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국내 영화 산업 정책의 변화와 국내 언어 정책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각각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후 영화 제목 번역기법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2.1 정책

2.1.1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미 군정기였던 195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영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정책적 노력은 많지 않다(김정수 2008: 1-2). 1962년 영화법의 제정에 앞서 시행된 당시 정책은 외국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 영화에 115%까지 입장세를 부과하고 영화 등급제 및 등급 보류와 같은 영화심의제

도를 두는 등의 노력에 불과하다(양경미 2014: 69).

그러나 1962년 1월에 영화법이 최초로 시행되면서 수입 영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다. 이때 수입쿼터 강화, 외국 영화 수입 가격 상한선 제한 조치, 외화 복사프린트 발수 제한 조치뿐 아니라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한다(양경미 2014: 50-76). 1973년에는 영화진흥조합에 이어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한국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영화 시책을 매년 발표하여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김미현 2014: 59). 이처럼 1962년 1월에 최초의 영화법이 시행되어 1987년 6월에 한미 영화협상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화 산업 정책이 국내 영화 진흥을 도모하는 반면에 외국 영화 수입을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국내 영화 산업의 보호기’라 하겠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정부는 산업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문화 부문의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1984년 말에 미국 영화 수출협회 측이 한국 정부가 불공정한 수입규제와 검열을 한다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 제소하여 한국 영화 시장의 개방을 촉구한 일과도 맞물려있다(좌승희, 이태규 2006: 104-105). 이로써 1985년과 1988년에 이루어진 제1차, 제2차 한미 영화협상 이후에 외국 영화에 대한 수입쿼터와 수입가격제한 제도 등의 수입 장벽이 폐지되고 영화업 허가제를 대신해 영화업 등록제가 부활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외국 영화 수입 프린트 발수도 점차 완화되고 영화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양경미 2014: 100-115). 그러나 2002년 1월에 영화진흥법의 4차 개정으로 영화 내용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때를 완전한 개방으로 보기 어렵다(김정수 2008: 3-4). 따라서 이 시기를 국내 영화 정책이 보호기에서 개방기로 향하는 ‘국내 영화 산업의 과도기’라 하겠다.

한미 영화협상 이후 한국 영화 시장은 국내 영화 의무 상영제인 스크린쿼터 제만을 남겨두고 모두 개방된다. 그러나 미국과 FTA 체결을 원했던 정부는 2006년 3월 스크린쿼터 일수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김정수 2008: 8-9).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극장에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할 한국 영화 일수가 50%나 축소되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극장에서 국내 영화의 입지를 급격히 좁히는 반면에 외국 영화의 개봉 기회를

비약적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25일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는 개봉 당일에 2,461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면서 전국 극장 상영 회차의 73%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미국 대형 제작사에서 만든 이 영화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영화인들 사이에서 한 편의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영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한겨레, 2018. 4. 26). 즉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방안은 외국 영화의 한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국내 영화 산업의 개방기’라 하겠다.

이상으로,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변환기를 주요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한다. 제1시기는 영화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1962년 1월부터 제1, 2차 한미 영화협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7년 6월까지로 보며 이 시기를 ‘국내 영화 산업의 보호기’라 한다. 제2시기는 제1, 2차 한미 영화협정이 시행되는 1987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제 축소가 실제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6월까지로 보며 이 시기를 ‘국내 영화 산업의 과도기’라 한다. 제3시기는 스크린쿼터제 축소가 시행되는 2006년 7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2019년 5월까지로 보며 이 시기를 ‘국내 영화 산업의 개방기’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변환기

구분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방향	해당 연도
제1시기	국내 영화 산업의 보호기	1962. 1 ~ 1987. 6
제2시기	국내 영화 산업의 과도기	1987. 7 ~ 2006. 6
제3시기	국내 영화 산업의 개방기	2006. 7 ~ 2019. 5

2.1.2 국내 언어 정책

국어는 역사적으로 중국 한자, 일본식 한자 및 외래어, 그리고 영어 외래어의 유입과 긴밀히 얽혀왔다. 1945년 광복 이후에 조선어학회가 한글 보급 및 한글만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1962년 문교부가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설치하면서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쓰는 국어 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임용기 2000: 66-72). 이로써 언어 정책은 국어 순화 정책과 맥을

함께 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2011)에 따르면, 1962년 한글전용특별심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1964년에 국어심의회가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설립되고, 1967년 한글학회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쉬운 우리말사전』을 편찬하여 어려운 한자말, 일본말 잔재, 서양 외국말 등을 우리말로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970년부터 정부 문서나 민원서류에도 한글 전용을 시행하고, 언론 출판계에도 한글 전용을 권장하는 7개 항의 지시를 내린다. 1976년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어 순화 자료를 발간하기 시작하며, 1984년에는 국어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어 순화 외에도 국어 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이처럼 1962년에서 1987년 사이에 시행된 언어 정책적인 노력은 당시 정부의 강력한 국어 순화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언어 정책 변화의 제1시기로 보고 ‘국어 순화 운동 확산기’라 하겠다.

정권 교체가 일어난 1988년 이후에도 국어 순화 운동은 지속된다. 문화체육관광부(2011)에 따르면, 1988년 1월에 ‘맞춤법과 표준어의 검토 및 수정’이 고시되고, 1991년 1월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매년 국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하며,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행과 함께 모든 단어의 표기와 발음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규범까지 확정된다. 2005년 10월에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며 국어 순화 운동의 노력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이전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국어 순화 정책과 비교하면 특색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당시 정부가 산업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문화 부문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언어 정책 변화의 제2시기로 보며 ‘국어 순화 운동 과도기’라 하겠다.

정부는 2006년부터 한글을 세계화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광범위한 언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진한다. 2006년에 작성하여 2007년에 시행한 ‘국어발전기본계획’에는 “국어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 해외 진흥 확대, 국어문화유산 발굴 및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 국어 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11: 7) 등이 명시되어 있다. 2008년에 국어상담소는 국어문화원으로 변경되어 국어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2009년 한글학회는 ‘한글사랑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

는 공공 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010년에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한글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이처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언어 정책은 한글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왔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언어 정책 변화의 제3시기로 보며 ‘국어의 세계화 운동기’라 하겠다.

이상으로, 국내 언어 정책 변환기를 주요 정책이 시행 및 추진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제1시기는 문교부가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설치하면서 국어 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62년부터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이전인 1987년으로 보며 이 시기를 ‘국어 순화 운동 확산기’라 한다. 제2시기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맞춤법과 표준어의 검토 및 수정’이 고시된 1988년 1월부터 대외적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이전인 2005년까지로 보며 이 시기를 ‘국어 순화 운동 과도기’라 한다. 제3시기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언어 정책을 개진한 2006년부터 2019년 5월까지로 보며 이 시기를 ‘국어의 세계화 운동기’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 언어 정책 변환기

구분	국내 언어 정책 방향	해당 연도
제1시기	국어 순화 운동 확산기	1962 ~ 1987
제2시기	국어 순화 운동 과도기	1988 ~ 2005
제3시기	국어의 세계화 운동기	2006 ~ 20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언어 정책 변환기는 정권 교체에 따른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변환기와 시기적으로 무관하지 않으며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두 정책이 변환되는 세 시기의 해당 연도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영화 산업 정책은 각 시기의 기준이 되는 법의 시행 시점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언어 정책은 정부의 국어 발전 계획의 동향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거나 추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시기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 언어 정책 변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 데는 다소 임의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정책 방향이 강력한 국어 순화 정책으로 시작하여 국어의 세계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겪은 바를 근거로 위

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해 연구하도록 한다.

2.2 분석틀 관련 선행연구

2.2.1 영화 제목 번역기법 유형

영화 제목이 하나의 상표로서 영화의 흥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영화 제목 번역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영화 제목 번역과 관련된 기존 연구 동향은 번역기법 유형 연구(김순영 2006; 류철균, 최형용 2007; 이영제 2016; 임종우, 이상빈 2016), 나라별 번역기법 대조 연구(구본석, 서정목 2017; 반리가 2017; 조영희 2014), 장르별 비교 연구(Andersen 2010; Surdyk and Urban 2016)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번역기법 유형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영화 제목 번역기법 유형 연구에서 학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기법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다. 원제목의 발음을 번역 언어의 발음 방식으로 표기하는 음역(transliteration), 원제목의 단어를 의미상으로 일대일 대응하여 번역하는 직역(literal translation), 그리고 원제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어휘나 어구를 첨가 혹은 생략함으로써 원제목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역(free translation)이다(반리가 2017; 오미형 2012; 임종우 2017; 임효양 2012; 조영희 2014; Andersen 2010; Gu 2017; Sun and Choi 2011; Yin 2009).

음역, 직역, 의역 외에 더 구체적인 번역기법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오미형(2012)은 영어로 번역된 한국 영화 제목의 한영 번역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서 음역과 직역 외에도 한국어 원제목이 영어로 되어있어서 번역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무번역’을 소개하고, 원제목의 어휘나 형식 차원에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조절’, 원제목과 전혀 다른 영어 제목으로 번역된 경우는 ‘새로쓰기’로 칭한다. 또한, 조영희(2014)는 미국 영화 제목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비교한 연구에서 음역 및 직역과 함께 영화 원제목의 단어 중 일부만 의미상 일대일로 대응되고 나머지 일부는 생략, 치환, 첨가되는 경우를 ‘의역’, 원제목의 단어와 의미상으로 대응하는 단어가 번역에 없는 경우를 ‘개역’으로 칭하며,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혼합되는 경우를 ‘기타’로 제시한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영화 제목은 다양한 기법으로 번역되는 특

정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의역, 조절, 새로쓰기, 개역 등의 구분으로는 그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PNU 영화제목 번역사전(파트1. 영미편)’¹⁾의 제작 과정이 하나의 예다. 당시에 2011~2015년까지 국내 수입된 영미권 영화 총 500편의 영화 제목을 온라인 사전으로 편찬하였고, 번역기법을 구분하는 하위 항목이 작업에 포함되었다. 번역기법은 오미형(2012)이 제시한 정의를 따라 ‘무번역’, ‘음차’, ‘직역’, ‘조절’, ‘새로쓰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 분석 시 독특한 번역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원제목과 의미가 전혀 다른 영어 표현으로 바꾸어 음역한 경우, 단순히 의미 첨가를 넘어서 원제목에 부제를 붙인 경우²⁾, 여러 번역기법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 등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한 번역된 영화 제목 기법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상술하기 위해 안데르센(2010)이 제시한 ‘의역’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그는 영미권 영화 제목이 덴마크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로맨스, 코미디, 어린이영화 장르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 솔다거 외(Schjoldager, Gottlieb and Klitgård 2008)가 제시한 의역 개념을 적용한다. 의역은 ‘명시화(explicitation)’, ‘바꿔쓰기(paraphrase)’, ‘축약(condensation)’, ‘번안(adaption)’, ‘첨가(addition)’, ‘대용(substitution)’, ‘생략(deletion)’, ‘치환(permutation)’, ‘모사(calque)’로 세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할 분석틀로서 번역기법은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이다. ‘음역’과 ‘직역’은 오미형(2012)과 조영희(2014)의 정의를 따르고, ‘의역’은 안데르센(2010)의 정의를, 그리고 ‘혼합역’은 조영희(2014)가 제시한 ‘기타’의 정의를 따른다.

2.2.2 분석틀

영화 제목의 영한 번역기법 연구를 위해 사용할 분석틀은 상위범주로서 음역(transliter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의역(free translation), 혼합역(mixed translation)의 4가지 기법이다. ‘음역’은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발음

1) 부산대학교의 2017년 1학기 강의인 <전문용어세미나> (박현주 교수)에서 제작 및 편찬한 온라인 사전으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원제목에 부제를 붙인 경우를 ‘의역’으로 보고 하위범주 중 ‘첨가’로 분류한다.

을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로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영화 원제 <Iron Man>을 <아이언맨>으로 쓰는 경우이다. ‘직역’은 ST의 어휘를 TT의 대응어로 번역하는 방법으로서 영화 원제 <Bride Wars>를 <신부들의 전쟁>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의역’은 ‘명시화(explicitation)’, ‘바꿔쓰기(paraphrase)’, ‘축약(condensation)’, ‘번안(adaption)’, ‘첨가(addition)’, ‘대용(substitution)’, ‘생략(deletion)’, ‘치환(permutation)’, ‘모사(calque)’의 하위범주를 포괄하는 기법이다. ‘혼합역’은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영화 원제 <The Loft>가 <더 로프트: 비밀의 방>으로 번역되어 음역과 의역(첨가) 기법이 동시에 사용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의역의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명시화’는 함축적인 ST의 정보를 TT에서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기법이다. 영화 원제 <The Conqueror>가 <징기스칸>으로 번역된 경우로서, 통치자를 의미하는 ST가 TT에서 징기스칸이라는 구체적인 인물로 명시화된다. ‘바꿔쓰기’는 TT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ST와 문맥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법이다. 영화 원제 <The Kindergarten Teacher>가 <나의 작은 시인에게>로 번역된 경우로서, 놀라운 시적 재능을 가진 유치원생을 가리키는 ST가 TT에서 나의 작은 시인으로 번역되어 ST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축약’은 ST의 명시적인 정보를 TT에서 함축적으로 번역하는 기법이다. 영화 원제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이 <모정>으로 번역된 경우로서, ST는 사랑하는 두 연인의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TT에서 이를 모정으로 함축하여 번역한다. ‘번안’은 ST 작가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려는 시도를 통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ST 항목의 효과를 재창조하는 더 창의적인 번역기법이다. 영화 원제 <Breathe In>이 <우리가 사랑한 시간>으로 번역된 경우로서, ST는 남자 주인공이 오디션을 앞두고 긴장할 때 그의 연인이 긴장을 풀어주고자 하는 애정 어린 장면을 의미하는데 TT는 ST와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된다. ‘첨가’는 TT에 의미를 덧붙여서 번역하는 기법으로서 첨가된 의미는 ST에서 유추될 수 없다. 영화 원제 <The Cowboys>가 <11인의 카우보이>로 번역된 경우이다. ‘대용’은 지시적으로 TT의 어떤 항목이 주어진 ST의 어떤 항목에 대한 번역이 분명하지만 의미론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경우로서, ST의 의미를 바꾸어 번역하는 기법이다. 영화 원제 <Pet Sematary>가 <공포의 묘지>로 번역되는 경우로서, 애완동물을 뜻하는 pet이 공포로 번역됨으로써 의미론적으로 ST의 의미가

바뀐다. 영화에서 애완동물 묘지를 중심으로 끄찍한 일이 벌어지므로 pet이 공포로 대응된 것이다. ‘생략’은 ST에 있는 의미 단위를 없애는 번역기법으로써, 영화 원제 <The Cannonball Run>이 <캐논볼>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치환’은 ST에 제시된 두운 및 각운을 TT에서도 살려서 번역하는 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사’는 ST의 구조를 TT로 옮기거나 ST와 아주 근접하게 번역하는 기법으로서, 영어와 어순 구조가 전혀 다른 한국어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치환’과 ‘모사’는 분석틀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틀로서의 번역기법

구분		정의
상위범주	음역	ST의 발음을 TT로 표기
	직역	ST의 어휘를 TT 대응어로 번역
	의역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응, 생략의 하위범주를 포괄하는 기법
	혼합역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의역의 하위범주	명시화	ST의 함축적 정보를 명시적으로 번역
	바꿔쓰기	ST를 자유롭게 변형시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축약	ST의 명시적 정보를 함축적으로 번역
	번안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ST의 효과를 재창조하는 번역
	첨가	ST에 의미를 덧붙이는 번역
	대응	TT 항목이 지시적으로 ST 항목에 대한 번역이 분명하지만, ST가 의미론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번역
생략	ST의 의미 단위를 없애는 번역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연구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반 영화, 예술 영화, 독립 영화를 포함한 수입된 미국 영화 가운데 국내 극장에서 개봉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추출 시 영화진흥위원회 웹사이트

트에서 제공하는 정렬 방식³⁾ 중에서 ‘최신업데이트순’을 선택함으로써 자료에 번호가 임의로 매겨지게 한다. 이렇게 추출된 자료는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변환기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2.1.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영화 산업 정책은 언어 정책과 비교할 때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시점이 시기적으로 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언어 정책 변환기와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제1시기는 국내 영화 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정책이 집중된 1962년 1월부터 1987년 6월까지이며 이때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는 총 369편이다. 제2시기는 한미 영화협정을 통해 한국 영화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1987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이며 당시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는 총 2,659편이다. 제3시기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완화하여 국내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 한 200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는 총 2,995편이다. 그러나 본고는 각 시기별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의 총 편수를 분석하는 대신에 번호가 임의로 매겨진 1~100번⁴⁾까지의 영화를 각 시기별 연구 자료로 선정함으로써 각 시기별 100편씩 총 300편의 영한 번역된 미국 영화 제목을 분석한다. 이렇게 선정된 총 300편의 자료는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으로 분류하고, ‘의역’은 다시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응’, ‘생략’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단, 의역의 하위범주에 대한 분석에서는 혼합역에 나타난 의역의 하위범주도 합산하여 총 빈도를 산출한다.

그러나 번역기법 분석 시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품사 변환은 별도의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화 원제 <A Farewell To

- 2019년 5월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웹사이트의 ‘영화정보’ 코너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mvie/searchMovieList.do>)에서는 자료 정렬 방식을 ‘최신업데이트순’, ‘제작연도순’, ‘영화명순(ㄱ~Z)’, ‘개봉일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 제2시기에 추출된 자료 중 영화 <A.I.>는 <A.I.>로 ‘무번역’ 되는데 이는 연구 범위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101번까지를 자료로 한다. 또한, 제3시기에 추출된 자료 중 한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 <밀정>, <곡성>, <산타바바라>, <파파>는 각각 영어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개봉된 미국 영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104번까지를 자료로 한다.

Ams>가 <무기여 잘 있거라>로 번역되는 경우, 명사인 ‘farewell’이 동사인 ‘잘 있거라’로 번역되어 품사 변환이 일어난다. 이때 품사 변환을 고려하지 않고 ‘직역’으로 구분한다. 둘째, 관사, 전치사, 복수형, 아라비아 숫자⁵⁾는 분석에서 제외하는데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상 영한 번역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르별 분석은 제외하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예비 연구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권유진 2018)에 기인한다.

예비 연구는 영화 제목이 영한 번역될 때 장르별 선호되는 특정 번역기법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관객이 선호하는 주류 장르뿐 아니라 비주류 장르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드라마, 액션, 코미디, 로맨스, SF, 판타지, 애니메이션, 공포,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다큐멘터리의 총 11개 장르에 대한 번역기법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2008~2017년의 10년 사이에 국내 개봉된 1,914편의 영한 번역된 미국 영화 제목이었으며, 번역기법 유형은 오미형(2012), 조영희(2014), 안테르센(2010)의 정의에 따라 ‘무번역’,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타지와 애니메이션 장르는 ‘혼합역’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모든 장르는 ‘음역’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무번역’은 영화 원제 <9/11>이 <9/11>으로 번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장르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영화 제목 영한 번역기법 연구에서 장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화 제목이 영한 번역되는 양상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로 나누어 번역기법의 빈도수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변화가 번역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여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연구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이 변환되는 세 시기에 상위범주 기법인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의 번

역 양상에 차이가 없다. 둘째,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이 변환되는 세 시기에 의역의 하위범주 기법인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용’, ‘생략’의 번역 양상에 차이가 없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각 시기에 따른 정량적 결과

이번 절에서는 1962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내 영화 산업 정책 변환기와 국내 언어 정책 변환기의 각 시기별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 총 300편의 영화 제목에 대한 영한 번역기법을 분석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위범주 번역기법에 관한 연구 귀무가설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각 시기별 상위범주 번역기법 분석 결과 빈도

시기	항목	상위범주 번역기법				총계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	
제1시기	관찰빈도	38	22	14	26	100
	기대빈도	45.7	13.0	19.0	22.3	100.0
	각 시기별 %	38.0	22.0	14.0	26.0	100.0
제2시기	관찰빈도	62	15	14	9	100
	기대빈도	45.7	13.0	19.0	22.3	100.0
	각 시기별 %	62.0	15.0	14.0	9.0	100.0
제3시기	관찰빈도	37	2	29	32	100
	기대빈도	45.7	13.0	19.0	22.3	100.0
	각 시기별 %	37.0	2.0	29.0	32.0	100.0

5) 단, ST에 없는 아라비아 숫자가 TT에 첨가된 경우는 유의미한 경우로 보고 분석에 포함한다.

〈표 5〉 상위범주 번역기법 분석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5.261 ^a	6	.000
우도비	50.316	6	.000
유효 케이스 수	300		

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13.00임.

〈표4〉에서 각 시기별 번역기법 빈도(%)를 살펴보면, 제1시기에는 음역이 38회(38.0%), 직역이 22회(22.0%), 의역이 14회(14.0%), 혼합역이 26회(26.0%)로서, 음역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혼합역이다. 제2시기에는 음역이 62회(62.0%), 직역이 15회(15.0%), 의역이 14회(14.0%), 혼합역이 9회(9.0%)로서, 음역의 사용률이 대단히 높다. 제3시기에는 음역이 37회(37.0%), 직역이 2회(2.0%), 의역이 29회(29.0%), 혼합역이 32회(32.0%)로서, 음역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혼합역이다.

〈표5〉를 통해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이 변환되는 세 시기에 상위범주 기법인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의 번역 양상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카이제곱 통계량이 45.261이고 유의확률이 .000임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 값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작으므로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언어 정책이 변화되는 세 시기에 상위범주 기법인 ‘음역’, ‘직역’, ‘의역’, ‘혼합역’의 번역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역의 하위범주 번역기법에 관한 연구 귀무가설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각 시기별 의역의 하위범주 번역기법 분석 결과 빈도

시기	항목	의역의 하위범주 번역기법							총계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용	생략	
제1시기	관찰빈도	3	0	2	11	6	2	14	38
	기대빈도	1.7	1.7	.8	19.8	3.4	2.1	8.4	38.0
	각 시기별 %	7.9	0.0	5.3	28.9	15.8	5.3	36.8	100.0
제2시기	관찰빈도	0	1	0	13	1	2	6	23
	기대빈도	1.0	1.0	.5	12.0	2.0	1.3	5.1	23.0
	각 시기별 %	0.0	4.3	0.0	56.5	4.3	8.7	26.1	100.0
제3시기	관찰빈도	1	3	0	23	1	1	0	29
	기대빈도	1.3	1.3	.6	15.1	2.6	1.6	6.4	29.0
	각 시기별 %	3.4	10.3	0.0	79.3	3.4	3.4	0.0	100.0

〈표 7〉 의역의 하위범주 번역기법 분석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1.336 ^a	12	.002
우도비	39.983	12	.000
유효 케이스 수	90		

a. 15셀(71.4%)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최소 기대빈도는 .51임.

〈표 6〉에서 각 시기별 의역의 하위범주 번역기법 양상을 살펴보겠다. 제1시기에는 명시화가 3회(7.9%), 바꿔쓰기가 0회(0.0%), 축약이 2회(5.3%), 번안이 11회(28.9%), 첨가가 6회(15.8%), 대용이 2회(5.3%), 생략이 14회(36.8%)로서, 생략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번안이다. 제2시기에는 명시화가 0회(0.0%), 바꿔쓰기가 1회(4.3%), 축약이 0회(0.0%), 번안이 13회(56.5%), 첨가가 1회(4.3%), 대용이 2회(8.7%), 생략이 6회(26.1%)로서, 번안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생략이다. 제3시기에는 명시화가 1회(3.4%), 바꿔쓰기가 3회(10.3%), 축약이 0회(0.0%), 번안이 23회(79.3%), 첨가가 1회(3.4%), 대용이 1회(3.4%), 생략이 0회

(0.0%)로서, 번안의 사용률이 대단히 높다.

<표 7>을 통해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이 변환되는 세 시기에 의역의 하위범주 기법인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용’, ‘생략’의 번역 양상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카이제곱 통계량이 31.336이고 유의확률이 .002임을 볼 수 있다. 유의확률 값이 일반적인 유의 수준인 .05보다 작으므로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이 변환되는 세 시기에 의역의 하위범주 기법인 ‘명시화’, ‘바꿔쓰기’, ‘축약’, ‘번안’, ‘첨가’, ‘대용’, ‘생략’의 번역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와 국내 언어 정책의 변화가 영화 제목의 영한 번역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다음 절에서는 각 시기에 따라 번역기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함께 정성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제1시기의 번역기법

제1시기는 국내 영화 산업의 보호기(1962.1~1987.6)이자 국어 순화 운동 확산기(1962~1987)이다. 영화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수입 영화를 강력히 규제하는 반면에 한국 영화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영화의 진흥을 도모한다. 언어 정책의 방향은 한글전용특별심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는 국어 순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번역기법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4.2.1 음역

제1시기에 음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38편(38%)이고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이 중 고유명사를 포함한 제목은 21편(55.3%)이고, 일반명사로 된 제목은 17편(44.7%)이다.

(1) 고유명사

a. ST: Ben-Hur

TT: 벤허

b. ST: Amadeus

TT: 아마테우스

c. ST: Doctor Zhivago

TT: 닥터 지바고

(2) 일반명사

a. ST: The Sound of Music

TT: 사운드 오브 뮤직

b. ST: Out of Africa

TT: 아웃 오브 아프리카

c. ST: The French Connection

TT: 프렌치 커넥션

(1)과 같이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기존 연구 결과(오미형 2012: 70; 임효양 2012: 18; Yin 2009: 171)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음역으로 번역된다. 이에 따라 일반명사로 된 제목의 빈도를 비교해야 음역이 해당 시기에 특징적인 번역 기법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2)는 모두 아카데미상 수상작으로서, 이는 원작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음역된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1)과 (2)의 경우를 고려할 때, 제1시기에 음역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하더라도 일반명사가 음역된 비율을 제2시기(75.8%)와 비교하면 음역을 제1시기의 특징적인 기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음역이 “ST의 발음을 TT로 표기하여 원천 언어가 갖는 청각적 효과를 유지해 강한 이국적 정취를 전하는 기법”(Yin 2009: 171-172)임을 고려할 때, 이는 외화 수입을 강력히 제한하고 한국 영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외래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했던 당시 정부 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류철균 외(2007: 27-41)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1986년과 2006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제목의 일부 혹은 전체가 외래어나 외국어로 되거나 번역된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 영화 제목에 나타난 외래어나 외국어의 분포가 1986년에 8편(8.8%)에서 2006년에 25편(23.3%)으로 상당히 증가했고, 외국 영화 제목이 외래어나 외국어로 번역된 사례도 1986년에 7편(14.9%)에서 2006년에 80편(33.8%)으로 급증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86년 당시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제1시기에 직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22편(22%)이며 제2시기(15%), 제3시기(2%)와 비교할 때 최대 빈도수를 차지한다.

- (3) a. ST: Gone With The Wind TT: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b. ST: The Bridge On the River Kwai TT: 콰이강의 다리
- c. ST: Terms of Endearment TT: 애정의 조건

(3)은 모두 아카데미상 수상작으로서 (2)의 사례처럼 음역되는 대신에 직역된다. 직역은 ST의 어휘를 TT의 대응어로 번역하는 기법으로서, “ST의 내용과 형식을 최대한 보존”(Yin 2009: 172)하면서 ST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적 기능을 가진다. 직역의 사용 빈도가 제2시기(15%), 제3시기(2%)와 비교할 때 제1시기에 가장 높다는 사실은 당시 공문서뿐 아니라 언론 출판계에도 한글 전용을 권장하도록 지시한 정부 정책과 한국 사회 전반에 국어 순화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된 사실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이는 양명희(2007)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에 한국인의 외래어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980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 바 있다.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의 증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1980년대에는 약 80% 정도가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2005년에는 30.5%가 부정적이었고 외래어가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는 응답도 11.0%나 되었다(강범모 2009: 61 재인용).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글 전용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짐작할 수 있다.

4.2.3 의역

제1시기에 의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14편(14%)이고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 하위범주(6)를 살펴보면 명시화 3회(7.9%), 바뀌쓰기 0회(0.0%), 축약 2회(5.3%), 번안 11회(28.9%), 첨가 6회(15.8%), 대응 2회(5.3%), 생략 14회(36.8%)이다. 빈도수가 높은 생략과 번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생략
 - a. ST: Sitting Target TT: 타겟트
 - b. ST: Mario Puzo's The Godfather TT: 대부
- (5) 번안: 한국어로 번안
 - a. ST: The Eddy Duchin Story TT: 애심
 - b. ST: Somebody Up There Likes Me TT: 상처뿐인 영광
- (6) 번안: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
 - a. ST: When Time Ran Out TT: 그레이트 불카노
 - b. ST: The Gauntlet TT: 윈 웨이 티켓

(4)는 생략의 예로써 세 시기 가운데 이때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생략은 혼합역에만 나타나며 ‘음역+의역’에서 10회(71.4%), ‘직역+의역’에서 3회(21.4%), ‘음역+의역+직역’에서 1회(7.1%) 출현한다. 번안은 ‘한국어로 번안’된 경우와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된 경우로 구분된다. (5)는 전자의 예로써 7회(63.6%) 출현하고, (6)은 후자의 예로써 4회(36.4%) 출현한다. 따라서 제1시기에 의역의 하위범주에서 주로 사용되는 번역기법은 ‘생략’과 ‘번안’이며, 번안의 경우에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기보다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2.4 혼합역

제1시기에 혼합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26편(26%)이고 사용 빈도가 두 번째로 높다. ‘음역+의역’이 16회(61.5%), ‘음역+직역’이 2회(7.7%), ‘직역+의역’이 7회(26.9%), ‘음역+직역+의역’이 1회(3.8%)이며, 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7) 음역+의역
 - a. ST: The Cowboys TT: 11인의 카우보이
 - b. ST: American Gigolog TT: 아메리칸 플레이보이
- (8) 음역+직역
 - a. ST: Sodom And Gomorrah TT: 소돔과 고모라

6) 의역의 하위범주는 혼합역에 출현한 의역의 사례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b. ST: East of Java TT: 자바의 동쪽

(9) 직역+의역

a. ST: The Last Hard Men TT: 최후의 총잡이

b. ST: Fiddler on the Roof TT: 지붕 위의 바이올린

(10) 음역+직역+의역

a. ST: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

TT: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이 시기에는 ‘음역+의역’의 사용률이 대단히 높고 다음으로 ‘직역+의역’의 사용 빈도가 높다. 제1시기는 혼합역의 사용 빈도가 높고 다양한 유형을 띤다. 혼합역이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제1시기에 번역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4.3 제2시기의 번역기법

제2시기는 국내 영화 산업의 과도기(1987.7~2006.6)이자 국어 순화 운동 과도기(1988~2005)이다. 권력 교체와 함께 정부가 산업 개방 정책을 펼침에 따라 영화 산업 정책은 외화에 대한 수입 장벽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국내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를 맞는다. 언어 정책 방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매년 국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국어 순화 운동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국어 순화를 위한 강경한 노력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번역기법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4.3.1 음역

제2시기에 음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62편(62%)이다. 이 중 고유명사를 포함한 제목은 15편(24.2%)이고, 일반명사로 된 제목은 47편(75.8%)이다.

(11) 고유명사

a. ST: Memphis Belle TT: 멤피스 벨

b. ST: Notting Hill

TT: 노팅힐

c. ST: Titanic

TT: 타이타닉

(12) 일반명사

a. ST: Back To The Future

TT: 백 투 더 퓨처

b. ST: Love Actually

TT: 러브 액츄얼리

c. ST: Easy Rider

TT: 이지 라이더

(11)과 같이 고유명사를 포함한 제목의 비율은 제1시기(55.3%)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에 (12)와 같이 일반명사로 된 제목의 비율은 제1시기(44.7%)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역이 제2시기의 특징적인 번역기법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제2시기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문화 산업의 개방으로 전환된 흐름과 관련된다. 국내로 수입되어 개봉된 미국 영화 편수가 제1시기에는 369편에 불과했으나 제2시기에 2,659편으로 7배 이상 급증한 사실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게다가 한국 영화 제목에 나타난 외래어 사용률을 시대적으로 비교한 강범모(2009: 46-69)의 연구를 보면, 1987년까지 5.1%에 그치던 외래어 사용률이 1988년~1995년 사이에 14.1%로, 1996년~2002년 사이에 27.1%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1980년대 말에 올림픽 개최를 통해 한국 내에 국제화가 가속화된 것과 “유신 체제(7기)에 있었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래어 배척 이데올로기가 종식되면서 나타난 현상”(2009: 60)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제2시기에 선호되는 번역기법이 음역에 치중된 이유는 당시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4.3.2 직역

제2시기에 직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15편(15%)이며, (13)은 직역의 사례이다.

(13) a. ST: Dead Poets Society

TT: 죽은 시인의 사회

b. ST: The Bridges of Madison

TT: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c. ST: A Walk In The Clouds

TT: 구름 속의 산책

이 시기는 음역의 사용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나머지 번역기법의 선호는 10%대의 사용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제1시기와 비교할 때 직역의 사용 빈도는 22%에서 15%로 크게 낮아진다.

4.3.3 의역

제2시기에 의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14편(14%)이다.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명사화 0회(0.0%), 바뀔쓰기 1회(4.3%), 축약 0회(0.0%), 번안 13회(56.5%), 첨가 1회(4.3%), 대응 2회(8.7%), 생략 6회(26.1%)이다. 빈도수가 높은 생략과 번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생략

- a. ST: K-19: The Widowmaker TT: K-19
- b. ST: The Messenger: The Story Of Joan Of Arc TT: 잔다르크

(15) 번안: 한국어로 번안

- a. ST: Awakenings TT: 사랑의 기적
- b. ST: Just Cause TT: 손 코넬리의 함정

(16) 번안: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

- a. ST: Ricochet TT: 닉크

(14a)는 의역에서 1회(16.7%) 출현한 생략의 예이고, (14b)는 혼합역에 나타난 생략의 예로써 ‘음역+의역’에서 5회(83.7%) 출현한다. (15)는 ‘한국어로 번안’된 예로써 12회(92.3%) 출현하고, (16)은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된 예로써 1회(7.7%) 출현한다. 이로써 제2시기는 제1시기와 유사하게 의역의 하위 범주에서 주로 사용되는 번역기법이 ‘생략’과 ‘번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안의 경우에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기보다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3.4 혼합역

제2시기에 혼합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9편(9%)이다. ‘음역+의역’이 7회

(77.8%), ‘음역+직역’이 0회(0.0%), ‘직역+의역’이 2회(6.3%), ‘음역+직역+의역’이 2회(6.3%)이며, 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7) 음역+의역

- a. ST: The Cowboys TT: 11인의 카우보이
- b. ST: American Gigolog TT: 아메리칸 플레이보이

(18) 음역+직역

- a. ST: Sodom And Gomorrah TT: 소돔과 고모라
- b. ST: East of Java TT: 자바의 동쪽

(19) 직역+의역

- a. ST: The Last Hard Men TT: 최후의 총잡이
- b. ST: Fiddler on the Roof TT: 지붕 위의 바이올린

(20) 음역+직역+의역

- a. ST: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 TT: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제2시기는 제1시기와 같이 ‘음역+의역’의 사용률이 가장 높으나, 혼합역의 사용률은 제1시기(26%), 제3시기(32%)와 비교할 때 대단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제2시기에 선호되는 번역기법이 음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4 제3시기의 번역기법

제3시기는 국내 영화 산업의 개방기(2006.7~2019.5)이자 국어의 세계화 운동기(2006~2019)이다. 한미 영화협상 이후 한국 영화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되었으나 결정적으로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 영화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반면에 외화 개봉 기회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을 맞는다. 언어 정책은 한글을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향되면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박물관의 건립과 세종어학당 설립 등 한국어의 해외 진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

으로 개선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번역기법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4.4.1 음역

제3시기에 음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37편(37%)이다. 이 중 고유명사를 포함한 제목은 15편(40.5%)이고, 일반명사로 된 제목은 22편(59.5%)이다.

(21) 고유명사

- | | |
|----------------------------|----------------|
| a. ST: Captain Marvel | TT: 캡틴 마블 |
| b. ST: Alita: Battle Angel | TT: 알리타: 배틀 앤젤 |
| c. ST: Miss Stevens | TT: 미스 스티븐스 |

(22) 일반명사

- | | |
|------------------------|--------------|
| a. ST: Alone We Fight | TT: 얼론 위 파이트 |
| b. ST: Green Book | TT: 그린 북 |
| c. ST: The Escape Room | TT: 이스케이프 룸 |

(21)과 같이 고유명사를 포함한 제목의 비율은 제2시기(24.2%)에 비해 늘어난 반면에 (22)와 같이 일반명사로 된 제목의 비율은 제2시기(75.8%)에 비해 줄어든다. 제2시기에는 선호되는 번역기법이 절대적으로 음역(62%)에 치중되지만, 제3시기에는 의역과 혼합역의 선호가 제2시기와 비교할 때 각각 14%에서 29%로, 9%에서 32%로 큰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명사로 음역된 제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역은 제3시기에 가장 선호되는 번역기법이다.

이러한 결과는 19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외화 제목 번역 양상의 변천과 관련한 연구에도 나타난다. 이영제(2016: 50-51)에 따르면, 음역된 제목의 비율은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두 배 정도 증가했고, 2000년대로 가면서 음역보다는 직역이나 의역을 통해 번역된 제목의 수가 점차 증가하지만, 2010년대에는 2000년대에 비해 다시 음역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본 연구에 나타난 각 시기별 음역의 사용률과 대체로 일치한다.

4.4.2 직역

제3시기에 직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2편(2%)이며, (23)은 직역의 사례이다.

- | | |
|--------------------|-----------|
| (23) a. ST: Her | TT: 그녀 |
| b. ST: Mean Dreams | TT: 험악한 꿈 |

직역의 사용률은 제1시기(22%), 제2시기(15%), 제3시기(2%)를 거치면서 급격히 낮아진다. 직역은 ST의 내용과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관객에게 S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직역의 사용 빈도가 각 시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1시기에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며 한글 전용을 강조하던 정책 기조가 제2시기에 들어서서 문화 산업을 개방하면서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개방도 가속화된다. 이때 외래어에 대한 인식이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긍정적으로 전환됨(양명희 2007, 강범모 2009: 61 재인용)과 동시에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외래어 제목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진다(강범모 2009: 63). 제3시기에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외화 개봉의 기회가 극적으로 증가한다. 이때 국내 개봉된 미국 영화 편수가 2,995편으로서 제2시기(2,659편)에 비해 증가하는데, 제2시기가 약 20년이고 제3시기가 약 14년의 기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괄목할만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다른 번역기법의 사용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직역의 사용 빈도는 급감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4.3 의역

제3시기에 의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29편(29%)이다.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명사화 1회(3.4%), 비꾸쓰기 3회(10.3%), 축약 0회(0.0%), 번안 23회(79.3%), 첨가 1회(2.6%), 대응 1회(3.4%), 생략 0회(0.0%)이다. 높은 빈도수를 갖는 번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24) 번안: 한국어로 번안 | |
| a. ST: Unleashed | TT: 내 완벽한 남사친의 비밀 |
| b. ST: Theta States | TT: 사탄의 자장가 |

(25) 번안: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

- a. ST: Peppermint TT: 아이 엠 마더
- b. ST: Ideal Home TT: 미스터 앤 미스터 대디

(26) 번안: 한국어와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

- a. ST: Fighting the Sky TT: 유에프오: 지구 침공

(24)는 ST가 ‘한국어로 번안’된 예로써 16회(34.8%) 출현하고, (25)은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된 예로써 29회(63.0%) 출현하며, (26)은 ‘한국어와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안’된 예로써 1회(2.2%) 출현한다. 제3시기에는 제1시기, 제2시기와 유사하게 의역의 하위범주에서 주로 사용되는 번역기법이 ‘번안’이다. 그러나 이때는 다른 두 시기와 다르게 한국어로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음역하여 번역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시기에는 의역의 사용 빈도가 다른 두 시기와 비교할 때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때는 다른 시기보다 의역의 선호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류철균 외(2007: 34-40)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외화 제목을 원제와 다르게 표현하되 다른 외국어로 나타낸 경우, 즉 번안의 사용률이 1986년도에 14.9%에 불과했지만 2006년도에는 33.8%로 증가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음역보다는 의역을 사용하는 것이 영화 내용을 광고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제3시기에 의역의 사용 빈도가 매우 증가한 이유는 영화 제목의 기능과 언어 정책적 변화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국어 발전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어 해외 진흥의 확대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디지털타임스, 2018. 10. 5) ‘한글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브레이크뉴스, 2018. 10. 10). 이러한 언어 정책적 동향 속에서 의역의 사용률이 매우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의역은 “ST가 내포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전달”(Li 2014: 75)함과 동시에 “TT의 언어적 습관을 존중하고 번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으로 번역하는 기법”(Sun and Choi 2011: 231)이다. 따라서 제3

시기에 영한 번역된 영화 제목은 영화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정보적 기능을 넘어서, 언어의 기교를 이용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영화에 호소력을 더함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사로잡으려는 경향이 커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제3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화 제목의 기능적 측면을 활용한 번역 방식을 선호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4.4.4 혼합역

제3시기에 혼합역으로 번역된 제목은 총 32편(32%)이다. ‘음역+의역’이 22회(68.8%), ‘음역+직역’이 6회(18.8%), ‘직역+의역’이 2회(6.3%), ‘음역+직역+의역’이 2회(6.3%)이며, 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7) 음역+의역

- a. ST: He Was A Quiet Man TT: 콰이어트 맨
- b. ST: The Happytime Murders TT: 해피타임 스파이

(28) 음역+직역

- a. ST: The Wizard of Oz TT: 오즈의 마법사
- b. ST: Mary Queen of Scots TT: 메리, 퀸 오브 스코틀랜드

(29) 직역+의역

- a. ST: Mummy Reborn TT: 미이라: 악령의 부활
- b. ST: Fahrenheit 11/9 TT: 화씨 11/9: 트럼프의 시대

(30) 음역+직역+의역

- a. ST: Pokemon Detective Pikachu TT: 명탐정 피카츄
- b. ST: Herbie Hancock TT: 허비 행콕: 무한한 가능성

이 시기도 ‘음역+의역’의 사용률이 다른 두 시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역+직역’의 사용 빈도가 높다. 혼합역은 세 시기 중에서 이때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다양한 유형을 띤다. 이로써 제3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번역이 다양한 기법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화 제목이 영한 번역되는 양상을 국내 영화 산업 정책과 국내 언어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변화가 번역기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제1시기는 음역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혼합역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때 직역은 다른 두 시기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사용률을 가진다. 제2시기는 음역의 사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번역기법은 약 10% 정도의 사용에 불과하다. 제3시기는 음역의 사용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혼합역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때 의역은 다른 두 시기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사용률을 가진다. 빈도수를 살펴보면 세 시기 모두 가장 선호되는 번역기법은 음역이지만, 각 시기별 나타나는 번역기법의 양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제1시기는 번역기법이 다양하게 구사되는 시기로서, 다른 두 시기와 비교할 때 직역의 사용률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당시 정부가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진흥하는 한편 외화 수입을 강력히 제한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기 위한 국어 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언론 출판계에도 한글 전용을 지시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시기에 선호되는 번역기법은 음역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제1, 2차 한미 영화협상을 통해 정책적으로 국내 영화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1980년대 말에 개최된 올림픽을 통해 한국 내에 국제화가 가속화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시기는 직역을 제외한 나머지 번역기법이 다양하게 구현된다. 특히 이 시기는 다른 두 시기에 비해 의역의 사용률이 두 배 정도 높아진다. 이는 의역이 TT의 언어적 습관을 존중하고 번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으로 번역하는 기법임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가 한국어 해외 진흥의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민간에서도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책적,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번역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가 각 시기별 국내로 수입되어 개봉된 모든 영화에 대한 분석 대신에 100편씩 총 300편의 자료만을 살펴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가 번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화 제목 번역은 당대 정책의 방향,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관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 차원의 분석을 넘어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번역 양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9) 「한국 영화 제목의 어휘론: 특히 외래어 사용의 변천과 관련하여」, 『한국어학』 42: 27-73.
- 구본석, 서정목 (2017) 「영어·한국어/영어·베트남어 영화제목의 번역전략에 관한 대조연구」, 『문화와융합』 39(6): 357-388.
- 구충모 (2018. 10. 10) 「‘한글날 기념’ 제 4 회 한글세계문화축제 성료」, 『브레이크뉴스』, 2020년 4월 30일 검색.
- 권유진 (2018) 「장르별 영한 영화제목 번역기법 연구」, 『한국언어과학회 2018년 여름학술대회 <인공지능과 자연언어처리> 발표집』 139-145.
- 김미현 (2014) 『한국 영화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순영 (2006) 「스코포스의 관점에서 본 영화제목 번역 유형」, 『통번역교육연구』 4(2): 31-46.
- 김재희 (2020. 4. 13) 「외화 제목이 흥행성공 주요 변수인데.. ‘라이드 라이크 어 걸’→‘라라걸’ 작명 논란」, 『동아일보』, 2020년 4월 30일 검색.
- 김정수 (2008) 『스크린 쿼타제: 학습용 행정사례보고서』, 중앙교육공무원.
- 노지승 (2016) 『영화관의 타자들: 조선영화의 출발에서 한국영화 황금기까지 영화 보기의 역사』, 서울: 엘피.
- 류철균, 최형용 (2007) 『영화 및 게임물 언어사용 실태 조사』, 2007 국립국어원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1)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시행 결과 보고서』, 2011 정기국회 보고 자료.
- 박창원, 최형용, 진대연 (2010) 『국제 언어 정책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반리가 (2017) 『A Study of the Translation(Chinese & Korean) of English Film Titles』,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경미 (2014) 『스크린쿼터로 본 한국영화정책』, 서울: 스토리하우스.

양명희 (2007) 「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화」, 『사회언어학』 15(1): 103-119.

영화진흥위원회 (2019. 5. 24)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movie/searchMovieList.do>. 2019년 5월 24일 검색.

오미형 (2012)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3(1): 59-85.

유선희 (2018) 「스크린 10개 중 7개 삼킨 어벤져스…또다시 독과점 논란」, 『한겨레』, 2020년 4월 30일 검색.

이영제 (2016) 「외화 제목 번역 양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70년대~2010년대 영미권 외화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4: 37-64.

임용기 (2000) 「21세기의 문자정책」, 『국어 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21세기의 국어 정책> 발표집』, 59-80.

임종우 (2017) 『영화제목 번역기법의 규범에 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2014년 국내에서 개봉한 영미권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종우, 이상빈 (2016) 「외화제목의 번역규범에 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2014년도 국내개봉 영미(英美) 영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1): 127-146.

임효양 (2012) 『Aspects of English-Chinese Film Title Translation Strategy』,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영희 (2014) 「미국 영화제목 번역의 한일 비교」, 『통번역학연구』 18(4): 274-294.

조은국 (2018. 10. 5) 「KB국민카드, 한글날 맞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 후원」, 『디지털타임스』, 2020년 4월 30일 검색.

좌승희, 이태규 (2006)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Andersen, Mia Vestergaard (2010) ‘The Fate of Movie Titles in Tran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lation Strategies in Title Translation’, *BA English and German*. Available at <https://es.scribd.com/document/130722735/BA-Project-The-Fate-of-Movie-Titles-in-Translation>.

Bai, Zhihong (2018) ‘On Translation Strategies of English Movie Titles’,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9(1): 119-124.

Gu, Ying-Ying (2017) ‘English-Chinese Translation of Foreign Movie Titles’, in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ducation and Management*, China: ICAEM 2017.

Li, Qun (2014) ‘Application of Contextual Adaptation in Film Title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2(4): 67-78.

Newmark, Peter (2001) *A Textbook of Translation*,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Schjoldager, Anne, Henrik Gottlieb and Ida Klitgård (2008) *Understanding Translation*, Academia.

Sun, Bao-guo and Chang-won Choi (2011) ‘Theories and Practices in the Translation of Movie Titles’,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8(4): 219-235.

Surdyk, Augustyn and Anna Urban (2016) ‘Mistranslation of Film Titles: Between Fidelity and Advertising’, *Glottodidactica* 43(1): 153-170.

Yin, Lu (2009) ‘On the Translation of English Movie Titles’, *Asian Social Science* 5(3): 171-173.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 Methods of Film Titles Influenced by
National Film Policies and Language Policies**

Kwon, Yu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translation methods are influenced by national film policies and language policies with particular influence on American film titles during the specific period from 1962 until 2019. To do this, the author divides the period into three phases based on when specific policies are enforced or enacted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new policy trends. The dataset is collected from each of the phase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includes four translation methods, which are transliteration, literal translation, free translation, and mixed transla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national film policies and language policies significantly influence how American film titles are translated into Korean. This study may provide insights that can extend the scope of translation study of film titles from just text analysi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ion and society.

▶ Key Words: film titles, translation methods, national film policies, language policies

▶ 주제어: 영화 제목, 번역기법, 국내 영화 산업 정책, 언어 정책

권유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수료

hanl2020@naver.com

관심분야: 영화번역, 코퍼스, 기술번역, 번역의 사회적 전환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